

조선인권 제 30 보사 정취부장

박을 대표.

본명: 박 끈산(한자) 이와노키치, 1919년 11월 27일
에 니콜스크-우쉬리스크주 그로레코보 구역 노재지 그로레코보
시에서 출생하였다. 박을 선생이 출생시 선생의 부모들은 농업
에 종사하였으나, 선생의 삼촌 박응주씨는 원동에서의 백화
군과 공산군과의 전투시 원동에 소비에트군 속립을 위하여 열성적
으로 공민전쟁에 참가하였으며, 박을 선생의 3촌 백 장인덕씨는
여맹사범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소련에 살고있는 전위 한인들
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삼촌 박응주씨는 1937년, 한인 강제이주
시, 한인 전체 인테리들을 대동 침산할시 강제배 논에 붙잡혀
죄있는 것 일본스파이로 축출당하고 아즈마님 장인덕씨는 그후
계속 한인 선분사들이서고정원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다 키웠고
은퇴한 나뉠때는 오래 앓으시다가 연세 80세에 가까워서
서거하시었다. 박을 선생은 함흥에 고증을 마감하고 강제
이주 후 우르백 공화국 깡간트 시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사
대를 1941년에 졸업하였다.

소련인민의 조국전쟁의 가혹한 시기인 1941년봄에 1942
년까지 다슈켄트주 중실척 구역 리흐바도브 깡호르에서
교편을 잡고 일하다가 1942 말에 소련군에 호모되며
소련 레닌그라드 북쪽 꼬리쿠에 가서 새철도 복설에 3년
동안 복무하다가 1944년에 소련 최고 소비에트 평영 "소련
군 대열에서 중학교 교원들을 제대할 때 대령에서 따라
제대되며 다시 자기 살던 깡호르에 돌아와 교원직업에
착수하였다. 이당시에 즉 1944년 가을에 박을 선생은 그학.



사진은 박훈 선생이 한민 공학교원으로 일할시
 1944년에 찍은것이다. 이 사진에는 북한에 가서 일하시던
 분들이 6명이 묘사되었다. 앞줄: 왼쪽으로부터: 단크 기술지휘
 국장 박일무, 박훈선생, 317군단 군사위원 리춘백 소장, 4. 총장처
 조직부장 박태섭 대좌; 뒷줄 오른쪽으로 부터 서북전선 군사위원
 김일 소장, 박훈 선생의 부인 강 아나브다시아 블라보브나 등 6명

녀교원 강 아나브다시아와 결혼하였다. 강 나샤는 (애칭)
 하유젠은 블라보브나 7월 25일(7월 25일에서) 고종에서 교장을 하고
 이은 강 블라브 딸인바 그녀는 노련에 살고있는 한민 교원들중의
 제일 처음으로 교원공로에 따라 노련 최고 훈장 레닌 훈장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박훈 선생은 소년 시절부터 체육을 좋아하는
 건장 체였다. 때 들에 벌써 원동에서 살고 있는 때 부터 원동
 변경 하기 체육 시 많다. 소년단 체육 시업 등에는 한번도 빠지지
 않아 블라지 보브도코, 하바코프 시에 파견되어 참가하시었다.
 박선생이 특별히 골라준 체육은 배구였다.

박선생은 1945년 시얼에 하유젠은 시군사동원부 명령에 따라
 원동변방 제1 전선 25군단에 파견되어 동역관으로 북한에



사진은 박선생이 리훈백, 박태섭 선생들과 같이
85군단 민전사령부 통역관으로 개설시 찍은 것이다.

등어가게 되었다. 북한에 도착한 박춘 선생은 민전 사령부
에서 지르하는 출판물 리드부에서 일하면서 더적이 12권 조소문화
협회 지흥에서 조직하는 로어 강습소 교원드 하고, 여윌시간 에는
로어로 출판된 조선학교 교과서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그
육성 회관 관리국의 사업에 가장 적절할 항공로 주었다. 1947
년에 조선로동당 중앙 당 학교가 조직되자 박춘 선생은 그 학교
에 초대 되어 조선 공산당사 상급 강사로 2년간 계시다가 1949년
봄에는 사회학 강좌관으로 인민군대에 1950년 7월에 중형

될 때까지 계속했다.

1950년 6월 25일에 인민군의 남침으로 동족 상잔이 시작되자 해방된 북부의 최고로 달성한 성과를 말미암아 인민군대는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3일간 휴식한다음 다시 남진하였으나 북동강 계천까지 당진학교서는 일본군이 전진할수 없었다.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하면 전포선은 다 점령한 것으로 계산하고 전략 전술적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내다보지 못한 유엔 안보리사회란 단체가 6월 25일에 자기 회의에서 북한을 침범자를 낙인하고 국제적 힘을 빌려 남한을 돕는다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음 미국을 선봉으로 하여 각국의 병력은 남한에 파견되어 북한이 침범자들을 방공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북한 노동당은 북한 청년들에게 호소하여 평안 남로 속천에 인청사단을 조직하였다. 이 때로 조직된 인청보병사단은 북한 인민군이 공격수세기에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여, 흥흥 만만 전진하던 동족 상잔의 초여기의 정신에서 끔찍이어서 하로 속히 남한에 나가 하늘에 달려 있는 별을 따겠다라는 정신은 가려진 않았으나, 현으로 불어 기다리는 무기로 한약도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훈련으로 제때를 할수없는 환경이었다.

바로 여기에 이 인청사단의 정치부장으로 박종선생이 임명되었다. 소련으로 불어 군부물자들이 계속 공작을 통하여, 언동 변강 크라브게노를 통하여 조선에 들어오기는 하나 북한 전역에서 철도, 철교, 호널가 파괴된 조건하에서 다만 자력으로 서반 무혈리길에 그 물자들을 번속하게 운반할 력량이 도저히 없었다. 얼마안한 물자가 흥반되면 철도를 전선 부대들에 운송하여 주고 아직 전선에 가보지못하고 훈련만 하고 있는 20보청년사관들은 그 차례가 멀지 못하였다.



사진은 1950년 하기, 박선생이 아직 중앙당 학교 강과장으로
 있을 때 찍은 것이다. 사진을 같이 찍으신 강나씨는 사모님
 은 당시 평양시에 있는 초원 6고공에서 교원직책을 담당하
 고 계셨다.

박선생이 정치책임자로 임명된 제 30 민청보사는 훈련
 을 잘받았거나 못받았거나 초원으로 불어 지역 총동은 보강받
 았기 때문에 사격은 선반히 하여 불리 못하여도 종대형대 대열
 정을 잘 알며 전후 서열 정을 잘 알고 행군하는 방법도 배워냈다.
 상부 명령에 따라 사관은 한약들을 발리 못하고 행군하며,
 평양-수도를 지날 때 한시간 정지하고 군영 군중대회를 열고 김
 일성 원수에게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이 노획 군중대회는
 총 정치국의 지시에 따라 박선생이 조직지휘하였으며, 그 때 총
 정치국 대표로 참석하였던 것이다.

맹세문에는 쓰기를: 조국의 근원한 데기에 미제 강점자들은
 우리의 조국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현재 남조선
 을 강점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북반까지 자기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언전에 상륙하였다. 우리 제 30 민청보사정원들은 미제
 강점자들을 우리 조국의 영토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그들과 자기
 자기 복수를 아끼지 않고 싸우기 위하여 지금 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5

니다. 우리가 권력에 도착하여 비리 강권자들과 대항하여 격
전할시 우리들은 자기 목숨이 깎이듯 순간, 피한방울 아낌없이
까지 죽어 항거하여 적을 물리치고 우리수도 평양을 수복하여 우
리의 백전 백승의 지도자 아버이 당신제 충신히 할것을 맹서 합니다

전선 아래 끝에는 각소대들을 대동하여, 소대장, 중대장 이상 사단
장까지 물러가며 투쟁하였다. 이렇게 접수된 맹세들은 총정족
지도원에게 내기고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한다음 행군은 계속되
었다. 사단은 행군을 하며 중화 사리원을 지나 황해로 서흥
장풍군 땅에 들어섰으나 하룻을 업고 행군하는 전사들은 낮이면
관치 않으나 밤에 행군하러는 꽤 후였다. 기관들은 전선에 나가면
무엇이든 다있다고 부하들에게 말하였고 전사들은 전선에 나가면
사실 무엇이든 다있을가하고 믿었다. 전사들은 금년봄에 호풍 골잡한
16-17세 자라가 해반후나 되고 그외 성원들은 20-30세 되는 설일
형제들이었으며 군복과 가운더온 여성들도 약 20명 가량 되었다.
그들은 다 대우 간호원, 흥선병, 열악병으로 복속하였다. 그러나

사단 성원들은 밤이면 행군하여 나갈시 밤에서 북으로 목포직적으로
2-3씩 혹은 10여명씩 집행을 하고 잔등에는 비질 가마나를 취해
고 걸어들어오는 부상병들을 무수히 볼수 있었으며, 전선에 물자가 많
다면 부상병들이 가마나를 이북대선에 등에 취매고 들어올수는 없
겠는데 하도 이뿐이 생기기도 하였다. 사단 성원들은 성병이 되
어서, 아직 패잔병이란 생각이더 그 취지를 상상할수 없었다.
이런군대는 낙동강 계선까지는, 아니 특히 서울까지는 능능
만 만 소리를 치며 줄달림처럼 전진하였지만 낙동강 계선
에서 두들려 맞고 유엔군 언천 상륙에서 뜯어터 맞고, 서울은
배해 맞고, 인제는 패잔병이 되어 체계적 지위를 잃고 산협은
나서 노복대 별로 회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신병들은 아직 생각로
할수 없었다. 그러나 사단 지휘부 성원들이 사단장, 정치부장 친

단

은감, 후방 부사단장은 앞으로 몇시후라 되겠는지 12시 알후라
 되겠는지, 당처를 똑똑히 대하여 간장을 말리하여 독을 태우고
 있었다. 사단은 업진강 계선에 도착하라 서울에 발차기 전에
 한취 당원 이상 그 계선에서 방어태세를 준비하든 것이 우리와
 다급 결정하고 방어서열을 편성하였다. 비록 한약은 없지만
 하나님에 갈로와주면 한약이 도착할것을 예상하고 전후규정
 대로 사단 방어전원은 20킬로터라, 두개 3인대의 전
 원은 10킬로터라하씩 업진강 계선 적의 도하가 가장 유리한
 정반대 방향에 배치하고 한대의 원대는 후방 사단 지휘처
 와같이 예비로 약 7킬로터라 떨어진곳에 배치하고 총
 신장들은 설치하였다. 전원에 두원대가 배치된 제 1원대에
 정치부장이 사단 지휘처 대대로 자원적으로 내려다 있었고
 제 2원대에는 사단 군사부사단장이 내려다 있었다.

두개 3인대는 업진강 계선을 따라가며 약 20킬로터라 거리
 에 정수들을 은열로 백제화 간격을 두고 왔다. 전후타격에준
 언반위원장과 부속하여 전군내 일할일할 상황들은 다듬 위하여
 사광이름 듣고 일주야간에 다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선사령부는 서울이 떨어진다음 철원에 들
 어가 있었을지라 거기에 사단장과 정치부장이합스를 찾아
 갔었다. 전선사령관 김책씨는 안게서인 비록보위상 최용건
 차수가 계시고 보원고문서 두분이 계셨으나 여기에 한약어은
 되고 있다는 정보는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사단장이 사면
 정황에 대한 보고를 한다음 어떻게하였으면 좋겠는가 하고
 보위상에게 물으니, 그는 말하기를 방어 전지를 잡고 한약은 기다
 리라는 것이었다. 그리다가 한약이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적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전선사령관이
 도착한다음 차후 지시를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사단장이 보위상계서 지시를 받고 있는 사이에 살아 여러
 지지 많은 끝에 자리잡고 있는 전선 정치국에 박출정치부장은
 찾아갔다. 전선 정치국은 다직 석물이 떨어 지기전까지는 서울
 창경원에 있었다. 이때 전선 사령부는 밀리출치대 정은공당
 형에 있었다. 당시 전선 정치국장에 큰 김일이 있었고, 부국장에
 작은 김일이 있었다. 전선사령과 큰 김일은 북동강계선에서 아적
 들어 보지 않은고로 박출 정치부장은 김일 정치부국장을 만나게 되
 었던바 그 좌석에서 제226 연천 해안 방어 레단 정치부장 장
 학봉씨와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장학봉씨 형편도 박출 정치부장
 의 형편과 유사하였다. 박출시 사단성원들은 38선 이북 민족공화
 청년들로 구성된 연합부대였으며, 비록 한약은 받지 못하였지만 목
 장은 받아가지고 훈련을 한 대원들이었으나, 연천여단 성원들은 인
 계 유엔군의 상륙할시 거이나 전복나 영웅적 결사전에서 장영환족
 을 한다음 불과 501명, 남은 레단 지휘부성원들이 서울에 등
 어와 전선사령부의 명령으로 서울시 청년들을 구성된 보충병 700
 명을 받아, 역시 인천강 계선 연천군에서 훈련하고 있었으나
 아적 아무런 무장도, 한약도 받지 못하였으나 일부 연천 전후장
 에서 끌고 나온 자동총 12식자극과 소련제 보총 몇자극 76마
 사단통 한류서 있었을뿐이었다. 군복은 역시 공병시 한벌씩 언
 업을 하복어였다. 이들의 성분은 전복나 노삼업기, 리발사, 취사원
 요리사 - 서울 보충시원 들어 갔으며, 인민군 편에 편입되어 전쟁
 에 참가하여 타 여러 영웅심을 발휘할 기회를 받고 일대 단 청년들
 이였다. 대대 분에 이들은 인민군 정황이 좋지못러지고 후회하기 시작하
 는 것을 알게된 때 불어는 밤이되면 자기병영을 탈출하여 조방실 각부
 하고 있었던것이다. 이런 환경에 처하여 있는 이들은 공화국을 수호
 할 하등이 병력으로 될수없고, 오히려 그들을 잃어버리지 말기위하
 여 준비해야 될 포로병 집단과는 흡사하였다. 두 연합부대 정치
 부장은 전선 정치 부국장하고 같이 점식사를 하면서 어떤 저런 사정

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았다. 세 정치책임자들이 가족은 아직까
지 평양에 있었으나, 벌써 서울이 함북 되었단다는 소문이 난다. 북에서는
가족추방 조항을 급급하게 하고 있었다. 노련 출신 간부들이 가족은 처음
전쟁이 시작되자 포격이 없고 안전한 함북, 평북 자강도여 추방하였
다가 후에 군어 거기까지 회되어온다는 소문이 반북지역, 북단강
변길동정 활빈시동여 추방하기로. 당중앙은 결정하였다. 대
문에 전선에 나와 활동하고 있는 간부들은 가족에 대한 근심은 없었다.

1950년 9월 28일 저녁 6시경이 되어 두 정치부장과 각은
김일이는 어별하였다. 이 만남의 환경은 박을 정치부장 하호는 하
리별이였다. 박을 정치부장은 사단장하고 같이 월원 전선 사령부에
와서 어북의 문제로 뚜뚜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사단 방어 계
에 도라. 가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단 한가지로 결심한 것은 환
경을 봐서 사단 지휘부의 자제 결심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였다. 그러나 두분은 돌아오면서 단약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적은 임진강 이북으로 들어 놓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이것은
한번이 없는 전쟁이란 황적전이란 황적전이란 100년 전에는
위선없는 전술이였다. 현재 20세기 중엽에 와서야 무리이한
죽음의 전술이였다. 당시 전후장에서 대 전사가 1호 등안에 1결로
그람의 단환을 상대방에 내 놓는 자동총 앞에서 어떤 황적
전에 대한 말이 있을수 있느냐 말이다. 부분적 전사들이 자기의
부러운 함에 그러해서 몇몇개의 단환은 잠깐하였다. 하 러러
그것을 가지고 현제 논흙까지 무장한 유변군 앞에서는 방이
말도 안되는 것이요, 사단장과 정치부장의 결심은. 권함북대의
부러이한 별방의 결심언것이 확연하였다. 전쟁 환경에서는 건
한 정치적 각성이나 후령계 대한 해산같은 충성심만으로는 적의
단환을 막아 낼수 없는 것이다. 자기 방어 진지에 도착하자
박을 정치부장은 지휘관 정치일꾼들이 권함회의를 열고 월원전
선 사령부에 갔던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사단장과 결

신한 이야기를 한다음 각 중대별로 근무자 총회를 열고 우형제
 들이는 명세문을 접수하게 하였다. 박승 정치부장은 소련 조국전쟁
 시기에 소련의 수도를 식취하기 위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파노 독일감점
 자들의 공격을 좌절 식히고 도망치게한 영생 불멸의 반파노브 부대
 성원들의 초점을 반복할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환경이 전혀 정반
 대였다. 반파노브 부대 전사들에게는 무장과 함께 한약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산 예미리처럼 불어 들어오는 단코 풍대들로 엄중
 대타격을 주어 도망치게 하였다. 이 전투에서든 다만 죽음을 겁내지
 않는 용감성이 필요하여 달려드는 단코에 식격만 하시면 되었다.
 그러나 30 명 정도는 1번에 성원들에게는 포도, 기관총도 없이,
 다만 었다는것이 몇개의 우리한라 함을 맞은 보통병이었다. 한약
 이 없었다면 문제가 달랐을 것이다.

월원에서 연합부대 방어 계선에 귀환할시 사단 정치 부장과
 굳게 결심한 사단장의 말은, 적이 코앞에 당진하여 임전강을
 도하하여 전면적 공격 준비 포사격으로 할시 그 결심이 변경되
 정치 부장게 서면상 명령으로, 적에게 원대 방어계선을 신중
 히 내며 죽고 영생 혁명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단 예비계선의
 후회하여 들어 오라고 하였다. 명령은 꼭지행식으로 써서 자기
 부관을 띄워 전달하였던 것이

전쟁이란 일정한 법이 있는지라, 적이 10-15분을 앞서 포사격을
 할라는것은 공격을 예상한 준비사격인데 이따에 자기 전호들에
 잠복하여 적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야군을 일제히 후회할
 다는것은 폭주간에 들어오는 소목리나 할가지 현상이 되고말
 것이다. 적은 공격하면서 회복하여 있으면서 더가 가까이 접근 한다
 음 총을 소리가 함으로 지지르려고 기다리고 있는 야군을 발견하여
 가며 식격할대신에 꾸쭈어 서서 도망치는 야군을 쏘기능 느린
 진항 불에서 (물에서) 물고기 잡이 나 처이 있을 것이다.

박을 정치부장은 급속히 현대장을 불러 간단히 전지 내용을 이야기
 하니 현대장은 군사간부라,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다. 현대
 장을 후회시키지 않으면 적어도 두시간이 요구되는데, 이 환경에서 현대
 장을 없게 해서 후회한다는 것은 권체 인원들을 고기향으로 만든
 다는 격인데 죽더라도 방어계선에서 진지를 차지하고 접근하는 격으로
 (적일) 죽어면서 피갑이나 하고 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말에 박을
 부장도 동의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현대장은
 그 즉시 각 전호들에 전하리, 격을 잡으면 인차소에서 무기론
 안다 다른 격들을 살상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대장의 구령은
 전면 전호들에 가자선식간에 전달되었다. 전사들의 심정은
 포사격시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격들이 옥박하며 들어올서
 세도 머리를 들고 먼저 일어나서 지 말고 꼭 배려 있다나 적어 접근
 하려면 일어서 참으로 지르라는 것이었다. 물론 적은 자등총을 쥐었
 으니 사격할 것만 사실이다 그러나 총을 재빨리 쓰면 적만저
 민첩한 동작으로 그 격을 살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전호는
 맞이 박으로 할수 없는 환경에서 죽임과 죽임을 바꾸는 전호였
 적은 이진장에 접근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임전감도
 준비하고 있었다. 제 20 연청분사는 이 환경을 번외 건너다 보
 면서도 매 흉하게도 포화방 발사 할수 없었다. 일일 동안이
 면 일하게 준비한 유엔군 부대들은 제 1 현대, 와 제 2 현대정
 에서 도하를 하는 것이었다. 이때에 벌써 제 2 현대는 자
 리에서 후퇴하여 5킬로 미터 이상 후방에 들어감에 따라
 제 2 현대는 사단장의 후회 지시가 내리기 전에 벌써 전지
 내 쪽으로 현대장 겸임에 의하여 회각하였던 것이다. 즉
 이란 괴상한 집단이다 적은 벌써 어느나이에 이것을 알고
 제 2 현대 정면에 주력으로 배치하여 전진하고 제 1 현대
 데 정면에는 부차격 격함을 배치하여 가능한 정도에서

공격하면서 그 연대가 자기 역량을 발휘할수만 없게하면서 제자리에서 멀어 있게 하고 좌측 저항력이 없는데 오른쪽에 전지를 통하여 사단 예비계선에 접근한면서 제 1연대를 우회 포위 전술을 꾸미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대는 이리를 들고 밀어 쓸수 없어 계속 적의 공격만 기다리면서 2대복합채로 잠치고 있었다. 적은 정면으로 측면으로 후방으로 삼면 공격을 하여 제 1연대를 협멸적 하격을 주고 있었다. 연대는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몇몇 남은 성원들이 패잔병으로 무질서하게 퇴각하였다 바로 이 전후에서 정치부장 박춘 선생이 장렬하게 전사들과 같이 전사하였다. 연대장은 전사하였다고 바로 1950년 10월 5일에 되었다. 사단 정치부 성원들은 후회하는 전사들에게 박춘 선생에 대하여 물으니 그들은 대답하기를 사단 정치부장과 연대장은 전사들과 남한에서 나라 안에서 권총으로 몇번 발사하고 그 자리에서 참사하시었다고 하였다. 그 이후 제 30 민청보사는 남어지 오개령에 성원들을 데리고 행군하여 평양 방어 관에로 참가하려 못하고 다시 자기가 조직한 본지 평남 속천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속천에 도착한 그 이튿날 1950년 10월 12일에 속천에 유엔군 낙하산부대가 무함미 낙하였다. 이 낙하산 부대로, 벌써 여기에 집결한 제 30 민청보사는 한약 없는 비 병력 집단이란 것을 잘 알수 있는 군사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30 민청보사 오개령에는 이 낙하산 부대가 착륙하는 바람에 완전 붕괴되어 절반 이상 성원들은 완전히 도망치고 그 남어지도 무질서하게 반주군 유곡(1)에 도착하여 2대복합채로 있었다. 이경계 제 30 민청보사는 비명예스럽게 자기 존재를 끝냈고, 남어지 패잔병들은 후회 과정에 최고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다른 연함부대들에 편입되고 말았다.

박흥 정치부장이 전사한 이후 그의 가족에 대한 력사.
 박흥 선생이 전사한 이후 박흥 선생의 가정에는 아들 형제
 와 딸 하나가 있었다. 박흥 선생의 사모님 강나사 양은
 근본 직업이 교원인고로, 전쟁시기에는 축소하여 임시직으로
 가 있는 함빈사에서 로어교원으로 일하셨으며, 전쟁 이후에
 는 다시 평양에 나와 로어로 교육하는 6고종과 교원 대학
 등에서 로어교원을 하시다가 1956년에 부모들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소련에 돌아왔다. 소련에 돌아와서 모스크바에서
 박흥 선생에 대한 전반적 복음은 한다음 강나사 사모님은
 유가족으로의 특별한 우월권으로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
 조비, 사학보장, 취직문제, 아이들의 학업계속문제를 등
 결하여 가지고 유즈베크 공화국 하스겐스로 오게 되었다.
 하스겐스에는 볼킨인질 골호르에 강나사 사모님의 복로
 들어 계셨으며, 박흥 선생의 친형, 친누이 조카들이 복후는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강나사모님은 남편은 없으나, 친척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았으며, 아이의 중간에 불쌍양미면의
 방조를 받도록 하였다. 강나사 사모님은 1985년까지
 계속 하스겐스 여러 고종들에서 교원으로 일하시다가 현
 재 공훈있는 건금병으로 휴직하고 있으나, 별 5년내 중
 환으로, 고혈압 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현재 맨 걸터어
 딸 셋을 키우고 있다. 아들 둘은 전부다 대학을
 나오고, 장남은 비스네스맨으로 차남은 전공으로 산업기관
 에서 일하고 있다. 형박하나 유가족 후원회 성원으로, 조국
 통일에 대한 언월은 잊지 않고 있으며, 신복은 비바림없
 살리고 있다.

유가족 후원회가 제공한 재물에 따라
 친누이 박안돈이나 이와 같다.
 1995. 12. 11. 하스겐스.